

# 로맥 장군! 강백호 명군!...홈런포 시동

로맥, 1회초 '그랜드슬램' 포문  
강백호, 4회말 '동점투런' 균형  
추신수는 16~17일 삼성전 출장



SSG 로맥



KT 강백호

SSG 랜더스 외국  
인타자 제이미 로맥  
(36)과 KT 위즈 강  
백호(22)가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하며  
시범경기 개막에 앞  
서 타격감각을 조절  
했다.

SSG와 KT는  
14일 울산 문수야구  
장에서 연습경기를  
치렀다. 두 팀의 4번  
타자로 선발출장한  
로맥과 강백호는 홈  
런을 때려내며  
2021시즌 준비과정  
이 순조로움을 알렸다.

로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KT 선  
발투수 소병준이 난조를 보인 1회초 무  
사만루서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그  
랜드슬램을 쏘아 올렸다. 한 가운데 몰  
린 직구를 제대로 받아쳤다. SSG는  
4-0으로 앞서며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  
다. 로맥은 이후 2차례 더 타석에 들어  
섰지만 안타로 물러났다.

지난 4년간 KBO리그에서 매년 20홈  
런 이상을 때려내는 꾸준한 활약을 펼  
쳐온 장수 외국인선수 로맥은 올해 추  
신수와 함께 SSG의 중심타선을 책임져  
야 한다. 그는 최근 연습경기에 꾸준히  
출장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KT 강백호는 2-4로 뒤진 4회말 파워  
를 과시했다. 무사 1루서 타석에 들어  
선 강백호는 SSG 2번째 투수 김세현의  
초구를 특유의 파워 넘치는 스윙으로  
공략했다. 타구는 오른쪽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연습경기지만 메이저리그(M  
L) 무대를 수놓았던 추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큼직한 타구를 날렸다는 점에  
서 의미 깊었다. 강백호의 홈런으로 KT  
는 4-4로 균형을 되찾았다.



'내가 홈친다!' KT 정주후(오른쪽)가 14일 연습경  
기 울산 SSG전 7회말 2사 1루서 2루를 홈치고 있  
다. 송구가 빨라 접점이 펼쳐졌지만 정주후의 발이  
SSG 정현의 글러브보다 먼저였다.  
울산 | 주원희 기자 teth1147@donga.com

강백호는 3번째 타석에서도 힘차게  
방망이를 돌렸지만 우익수 플라이에 그  
쳐 4타수 1안타로 이날 경기를 마쳤다.  
강백호에게는 SSG전이 올해 2번째 실  
전이었지만, 실전에서 처음으로 홈런포  
를 가동했다.

한편 11일 SSG 선수단에 합류한 뒤  
슬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추신수(39)는  
이날 구장 백스톱에 자리를 잡고 구단  
관계자 및 동갑 외야수 김강민과 함께  
경기를 지켜봤다. 유니폼을 입고 경기  
장에 나선 그는 팀 훈련만 소화한 뒤 SS  
G, KT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유심히  
살폈다. 추신수는 16일과 17일 대구삼  
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인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에서 국내 첫 실전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양현종, 시범경기 두번째 등판 2이닝 완벽투

밀워키전 결장구 커브로 3K 위력  
"모든 공이 첫 등판 때보다 좋았다"



'순항 중!' 텍사스 양현종이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와 시범경기에 구원등판해 2이닝 1안타 3삼진 무  
실점으로 호투했다. 양현종 본인도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 모두 갈수록 올라오는 컨디션에 만  
족감을 드러냈다. 피닉스(미 애리조나주) | AP뉴시스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시범경기  
2번째 등판에서 안정적 투구를 선보였다.

양현종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  
나주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  
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원정)에서 3-3으  
로 맞선 5회말 팀의 3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1안타 3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은 8일 LA 다저스를 상대로 한 시  
범경기 첫 등판에서 1이닝 1홈런 1실점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스프링캠프 초청선수로  
메이저리그 입성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2번째 등판에서 멀티이닝을 소화하며  
제 구위를 뽐냈다. 5회 선두타자 출루를 허  
용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포수 드류  
부테라가 1루주자의 2루 도루를 저지한 도  
움을 받았다. 양현종은 후속타자 브래들리  
주니어를 3구 삼진으로 물리세우며 자신  
감을 얻었다. 이어 아비사일 가르시아를  
범타로 잡고 5회를 실점 없이 넘겼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선두  
타자 잭 그린을 우익수 뜰공, 이어 달린 코  
젠스와 빌리 맥키니를 연속 삼진으로 요리  
해 2이닝 무실점 투구를 마쳤다.

텍사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경기 후  
"양현종이 안정감 있는 좋은 투구를 했다"  
며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 변화구를 던져  
삼진 3개를 잡았다. 스프링캠프 합류 후 지  
금까지 아주 잘 던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양현종은 화상 인터뷰에서 "경기를 치  
를수록 (적응이) 좋아져 긍정적"이라며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모든 공이  
첫 등판 때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커브를 확실히 한국에서보다 많이 던져  
야 한다. 힘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  
피드 조절, 낮은 제구를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 로또플레이 34억 1등 당첨자 후기 공개!

「로또플레이 예상번호 받아 구매한 결과 34억 1등 당첨! 가입문의 1668-1645」



로또플레이 박영아 영업이사

932회 로또 1등에 당첨  
된 한 30대 남성의 사연  
이 로또플레이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다.

지난 10월 10일 추천한  
932회 추천방송에서 34  
억 로또 1등 당첨금의 주  
인공은 총 7명, 이 중 1등  
의 행운을 안게 된 영업에  
사는 문씨(남성/38세)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문씨는 현재 세계적으로  
대우행하는 코로나19 바  
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9  
월1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생활  
치료센터에서 퇴원하는 날 로또 분석 전문기업 '로또플레이'를 통  
해 입원 기간 중 부여받은 예상번호로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로또  
932회 추천일인 10월10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로또 추천 방  
송을 보던 중 심장이 멎을 뻔했다는 문씨.

이에 이 씨는 "지난해 11월경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로또플레이 골  
드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그때 신문에서 로또플레이를 알지 못  
했다더라면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로  
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후, 업체 측에서 보내준 예상번호로 1년 동  
안 한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  
던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김 씨(50대/여성)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  
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  
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향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이다.

로또플레이는 2020년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한국 소비자 만  
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초 18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92회, 2등  
1,508회, 3등 51,395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수령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  
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  
능하다. '로또플레이'는 12년의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  
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8-1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  
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LOTTOPLAY.CO.KR  
가입문의: 1668-1645

당첨보장제 출시! 가입기간 3년 동안  
3등 안되면 가입비 전액 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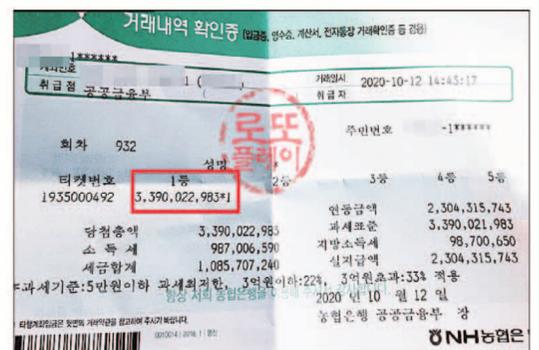


로또 932회 1등복권 (34억)

이 힘들었는데, 완치가 되어 퇴원하는 날 이런 큰 선물을 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말했다.

한편 문씨에게 로또 1등 당첨의 기쁨을 준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가  
로또플레이로 알려지면서 사이트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12년의 로또 분석 노하우 및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  
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인터넷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로  
또 분석 전문 기업 '로또플레이(가입문의:1668-1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씨(47세/여성) 역시 로또플레이 측에서 보내준 1등 예상번호로  
로또복권을 구매하였고, 로또 1등(30억 5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  
을 얻은 것이다.



문종혁(30대/남성) 골드회원의 34억 수령 영수증